

# “원주 땅 이중계약서 탈세 아닌가”

# “호남발전특위구성 지역인재 영입”

정몽준 전 대표 밝혀... 강시장 “과학벨트 분산배치 與 다른 채택을”

## ■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권익위원장 중도 하차 정치적 외압 없었나”

8일 열린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감사정책을, 야당은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헌법학자인 양 후보자의 도덕성에 결정적 하자가 없는지, 국민권익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지내며 한차례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고 향후 감사방향, 국회와의 협조방안 등 정책에 대해 주로 질문을 던졌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지방정부는 인허가권의 95%를 쥐고 있고 인사권을 돌려싸고도 추문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기존 방식으로는 지방정부의 부패를 막기가 어려운데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감사원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이 허용되지만 직무감찰에서는 추적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권성동 의원은 “감사원은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복안이 있는가”라며 “취임하면 교육비리 척결에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2004년 기획부동산업체를 통해 7800만원에 매입한 강원 원주시의 입야의 가격이 최근 1억 80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이는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라고 의혹을 제기한 뒤, “이중계약서에 따라 452

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를 8만7000원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맹지(盲地·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는 법상 집을 짓지 못하는데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땅에 전 원주주택을 어떻게 짓겠느냐”며 “맹지를 사는 이유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집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잘 알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초대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중 중도 하차한 것을 두고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이날 청문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양 후보자에게 “권익위원장을 그만 둔 것이 대통령의 문책성 인사이나, 이재오 권익위원장에게 양보를 한 것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도 “국민권익위원장을 부패방지 업무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자진 사퇴한 것이냐”며 “감사위원장을 하게 되면 감사원장 한계를 느낄 경우 자진 사퇴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재직 시절 권익

위 활동에 역점을 둔 것이 부패방지였는데, 권익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이 제약됐고 법적인 제한도 좁았다”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고 생각한 것이 배경”이라고 답했다.

투기 의혹과 관련, 양 후보자는 “부동산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업자로부터 땅을 산 것”이라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특히,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 취임한다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육비리 척결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당 ‘진보개혁모임’ 출범

민주당 내 486(4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과 재야파, 친노그룹이 참여하는 ‘진보개혁모임’이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열린 출범식에서 임재철 전 국회의장, 김근태 진보개혁모임 공동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MBC의 대주주인 방송 문화진흥회(방문진)가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데 따른 것으로, 임 전 사장이 지난해 2월 MBC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MBC 자문으로 위촉돼 자문료를 지급받아온 것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전임 MBC 사장이 자문으로 위촉된 것은 전례에 없던 일로, 선거에 나간다는 사람, 정치에 기웃거리는 사람을 자문으로 위촉해 한 달에 1000만원을 준 것은 오해받을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는 8일 “한나라당 내에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인재를 적극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현장 방문에 나선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일 정운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원희룡 원내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는 호남발전특위를 구성해 한나라당 문호를 호남 인재들에게 개방하고, 내년 총선에서 석패율과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여당 대표를 지낸 의원으로서 호남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직접 보고 듣기 위해 광주와 전남을 직접 찾은 것”이라며 “광주·전남 사·도민이 관심을 갖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사와 지역발전에서 호남 소외를 자주 얘기하는데 왜 호남 지역민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지가 한나라당의 숙제”라며 “김항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호남출신 인사들이 이



명박 정부에 참여하고 있고, 여수의 명품 등을 위해서도 당과 행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라며 호남 소외론을 일축했다.

그는 내년 대선 출마와 관련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본인의 의욕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대통령이 되려면 현장에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진행중인 현장 방문이 대선 출마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정 전 대표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서도 “살기좋은 나라가 되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함에 따라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이 집중돼 있는 만큼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원태 광주시장 이야기(삼각벨트론)도 고려해야 하는데 민주당 당론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태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을 방문한 정 전 대표에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배치를 한나라당 당론으로 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통령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3각 벨트로 해야 하며, 광주·전남에 본원, 대구·경북에 제2캠퍼스, 충청권에 제3캠퍼스로 분산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홍형기·최권민 기자 redplane@

## 강원 최문순-엄기영 맞대결 가능성

### 분당을 정운찬-손학규 대결 미지수

#### ■ 재보선 ‘빅매치’ 이뤄지나

‘4·27 재보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8일 거품급 인사 간 ‘빅매치’의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는 강원지사 선거의 경우 춘천·이화영 전 의원 등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져 만만치 않은 전초전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 분당율은 정치권에서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간 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여야의 대표적 대권 후보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47년생 동갑으로 학번으로는 손 대표가 경기고, 서울대 1년 선배다.

하지만, 손 대표가 출마를 전제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다 정 총리도 아직 확실한 거취 표명을 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영동 출신의 최홍집 전 강원도 정부부처 등이 조직력을 바탕으로 도전장을 던졌고 민주당의 경우 조일현·이화영 전 의원 등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져 만만치 않은 전초전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 분당율은 정치권에서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간 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여야의 대표적 대권 후보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47년생 동갑으로 학번으로는 손 대표가 경기고, 서울대 1년 선배다.

하지만, 손 대표가 출마를 전제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다 정 총리도 아직 확실한 거취 표명을 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예산안 충돌 김성화-강기정

### ‘화해 러브샷’ 눈길

지난해 12월8일 ‘2011년 예산안’의 한나라당 단독 강행 처리 과정에서 주먹다짐을 벌였던 한나라당 김성화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화해의 ‘러브샷’을 나눠 눈길을 끌었다.

국회 친목모임 ‘목욕당(沐浴黨)’ 소속 여야 의원들이 7일 저녁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만찬 자리에서였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주최한 이날 만찬에는 ‘목욕당’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민주당 최인기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두 의원은 주변에 있는 여야 의원들이 “두 사람이 일어나 화해를 하라”고 권하자, 멋쩍은 듯 일어나 서로 “사랑한다”며 팔을 끼고 폭탄주를 마셨다. 김 의원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다”고 하자, 강 의원이 “선배님을 계신데 죄송하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 좌중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책 일관성 유지” VS “종편 공정성 훼손”

### 문방위, ‘최시중 연임’ 싸고 여야 공방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8일 전체회의는 최시중 연임이 결정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 차원에서 최 위원장의 연임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불공정성’을 집중 제기하며 연임 불가로 맞섰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최 위원장이 그동안 통신료 인하에 노력해 왔고 종편을 비롯한 난제를 정리하는

데 역할을 했다”며 “주무 위원장으로 서 미디어랩 등 남은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은 “방송통신 융합정책, 새 미디어정책 등을 원만히 잘 처리했다”고 평가했고, 조운선 의원은 “상당수 방통위 상임위원이 교체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14명

중 과반인 8명이 대통령·여당이 임명한 방통위원의 추천으로 선임됐다”며 “공정성을 훼손한 심사위원 구성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최 위원장의 연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언론자유 추락, 방송탄압, 무리한 종합편성채널 선정 등을 ‘최시중 위원장 3년’으로 평가하면서 “연임은 절대 안 되며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한나라당 후보로 4·27 강원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엄기영 전 MBC 사장에 대해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회의에 MBC의 대주주인 방송 문화진흥회(방문진)가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데 따른 것으로, 임 전 사장이 지난해 2월 MBC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MBC 자문으로 위촉돼 자문료를 지급받아온 것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전임 MBC 사장이 자문으로 위촉된 것은 전례에 없던 일로, 선거에 나간다는 사람, 정치에 기웃거리는 사람을 자문으로 위촉해 한 달에 1000만원을 준 것은 오해받을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상**

2011년 2월 4일 SBS 주관

**전국동안대회 대상**

2011년 2월 24일 SBS 좋은아침 방송

**이계남 신비 건강 재활원**

심근경색 · 파킨슨병  
잠수병 · 혈관질환 · 허약체질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동요법만으로 본인도 놀랄만큼 단 시일내 치유됨!!

062)951-5511 · 016-9578-7777

**청소 및 건축물 종합 관리**

저희 (주)대진용역은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업체의 체계적인 업무처리 시스템과 각 서비스별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주)대진용역의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대진용역의 서비스 —

- 청소 용역**  
입주청소, 준공청소, 상주청소
- 소독 용역**  
소독 및 비취벌레·개미·해충 박멸
- 경비용역**  
시설경비, 경호업무
- 심부름**  
잔심부름, 개인업무
- 대리운전**  
장거리 운행 및 일, 월 대리운전

**(주) 대진 용역**

TEL 062)372-2332, 371-6644 FAX 062)376-8949

경비 및 청소원, 운전기사 모집 및 알선 해 드립니다.  
모집인원 : 경비인원 00명, 청소인원 00명, 운전기사 00명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

홈페이지는 기본

**이제는 모바일 홍보시대!**

모바일 홈, 스마트폰 어플 개발 (아이폰, 안드로이드)  
(주)쉐이커스가 스마트폰 어플로 여러분의 업체를 홍보해드립니다!

레스토랑	영화, 연극, 공연	일반 홍보용 어플 제작
골프 예약	카페	중고차판매

개발이력

모바일 게임 어플	테크 오브 나이트	홍보용 어플	소셜 커머스 '티켓몬키' 외 다수
	스포츠 게임 천국		
	월드 오브 드래곤		
	진상 액션		
	아쿠아 렌드		
	몬스터 체이스		
	외 다수		

문의 전화  
**(주)쉐이커스** 070-7581-7766  
010-3549-9358